

## “심을 모종마저 없다” 전남 배추 농사 현장 ‘아우성’

폭염에 생육장애·고사 ↑ ... 再정식·보식 수요 급증  
모종 한판 2-3만원 4배 이상 ‘깡충’... 공급 중단  
본격 김장철 앞두고 배추 가격 ‘추가 상승’ 우려

역대급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배추 모종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전남지역 모종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배추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김장철을 앞두고 이미 오를대로 오른 배추 가격이 추가 상승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전남도·전남도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 육묘장의 배추 모종 물량 부족으로 배추 농가의 정식·보식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배추 모종 부족 사태는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발아·생육 장애로 모종 불량 이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밭에 정식한 모종이 고온과 호우로 고사하자 재정식·보식하는 농가 수요도 급증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배추 농가 가운데 폭염으로 보식한 농가 비중이 20-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시장에 출하되는 여름 고랭지 배추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배추를 추가 정식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전남 전체 배추 재배 면적 중 10% 가량을 계약재배하고 있는 농협 전남본부 역시 모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평년에 5-6천원선이던 배추 모종 한 판(128-196개 들입) 가격 최근 2-3만 원대까지 치솟았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구하기 힘들어 공급이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을배추는 8월 말-9월 초 정식해 10월 말-11월 초 수확한다. 김장 시즌과 맞물려

주로 김장배추로 활용된다. 해남·진도·신안군에서만 생산되는 겨울배추(월동)는 9월 중순까지 정식을 마쳐 11월 말부터 12월에 수확에 들어간다. 현재 가을배추·겨울배추 모두 모종이 부족한 실정이다.

배추 모종 파종에서 발아까지 20-30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즉시 추가 육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김장 시즌에 맞춘 가을배추 추가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게 농정당국의 분석이다.

계다가 지난 19-21일 집중호우로 해남군 611ha, 진도군 25ha 등 도내 배추 재배 면적 641.7ha(생육장애 336.7ha, 유실·매몰 45ha)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전남도의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해남군 346ha, 진도군 12ha 등 총 400ha의 배추 재배 면적이 줄어든 상황이다.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지역의 지난해 가을·겨울배추 생산 면적은 4천195ha다. 집중호우, 작목전환 등으로 올해 피해를 입거나 감소한 면적만 지난해 재배 면적의 22.8%에 달한다.

전남도는 배추 정식 면적 등을 조사하는 행정조사를 오는 10월 중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모종 부족 사태에 따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올해 전남 가을 배추 생산량이 최소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올해 전국 가을배추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8월 20일 기준)에서도 1만2천870ha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1%, 43% 감소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배추 생육 장애가 심각하다”며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가을철 기온이 높다 보니 생육이 빨라져 11월 말과 12월 사이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생산이 맞물려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수급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시원 기자



KIA, 정규시즌 우승 트로피 ‘번쩍’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KIA전을 앞두고 KIA 타이거즈의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 수여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장현식과 나성범, 이범호 감독, 박찬호가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신분 없던 ‘무적자’ 50여년 恨 풀었다

광주가정법원, ‘성·본 창설 허가’ 인용 결정  
가족관계등록 후 주민등록번호 획득 길 열려

〈속보〉“주문, 사건 본인의 성을 ‘이(李)’로, 본을 ‘영광(靈光)’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한 평생 신분이 없었던 설움 속에 살아온 ‘무적자’(본보 6월 14·18·20·21·26·27·28일 6면)를 대한민국이 품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광주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무적자 A씨가 청구한 ‘성·본 창설 허가’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A씨가 대한민국 ‘내국인’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 신청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서 자랐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생년월일은 모른다. 통상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나이는 정확하지 않다. 스스로 1967년생이라고 소개한 것에 비취보면 57세로 추정된다. A씨는 태어난 월과 일을 2012년 영광군으로 온 3월 1일로 정했다. 그전까지 A씨는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반복했는데 영광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보급자리가 생기는 등 이전과 ‘다른 삶’이 시작됐다. 다만, 영광 이주 후에도 신분이 없어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

은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을 접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씨를 돕기 위해 2019년 광주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다행인 것은 A씨에게 특정후견인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 덕에 A씨는 통장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가능해졌고 ‘평범한 삶’에도 일정 부분 가까워졌다. 그럼에도 자격의 부재로 복지 제도 수혜 등이 불가능한 것은 그대로였다. 결국 A씨의 특정후견인은 지난 4월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재신청했다.

수개월 동안 노심초사하며 판결을 기다리던 A씨와 특정후견인은 2019년과는 다른 결정문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청구에 ‘이유 있다’고 판단,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2면에 계속 /안재영 기자

전남대 총장 후보 1순위 이근배  
2순위 송진규...내달 1일 교육부 추천



전남대학교가 제22대 총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이근배(61·사진)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를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했다.

25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체 투표자 수 7천100명 가운데 이근배 의대 교수가 환산득표수 총 788표를 얻어 1순위, 송진규(60) 공과대학 교수는 총 579표를 얻어 2순위로 선출됐다. 투표는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수(702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전남대 총장임용추천위는 후보자 선정에 대한이의신청과 연구윤리검증을 거쳐 1·2순위 후보를 10월 1일 교육부에 최종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중 한 명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김다이어 기자

**Today**  
지역활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6면  
담양 ‘라상채’ 단감 유기농 명인 9면  
KS, KIA의 가장 결끄러운 상대는? 16면

### 제16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접수마감 **9.30**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일회 접수 인정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용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 (장정별요)  
출품수: 4점 이내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4년 10월 7일(월)  
심사방법: 공개심사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강당  
심사결과발표: 2024년 10월 10일(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www.kjdaily.com  
개전 및 시상일시: 2024년 11월 6일(수) 오후 2시  
시상장소: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예정)

**시상 내역**

1.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2.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전남도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3.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 부상 50만원

**작품반송**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기타 사항**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작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은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o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위소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장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어야 함.  
· 초대작가 16"×20" 작품 e-mail 제출 (jkan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함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은행, 한수원주최한빛원자력발전

THE 16TH KJ DAILY PHOTO EXHIBITION